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3. 10(일)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기업이 고용한 만큼 인센티브 지급한다!** 고용인원과 투자금액 지원기준으로 투자인센티브 이원화 개편 신규고용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마련... 고용창출 극대화	투자유치실	
② **아직도 도시로 출근하니? 이제, 농촌으로 출근하자!** 청년 영농정착 고민 끝, 창업 준비에서 정착·성장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시행.. 농업법인, 청년 채용 시 인건비(월 200만원의 90%) 지원	농업정책과	
③ **콜록콜록... 미세먼지, 황사 우리도 싫어요~** 가축 호흡기 질병 증가할 수 있어... 축사소독으로 위생적 환경유지	동물방역과	
④ **고품질 인삼 생산... 해가림 시설 차광재 선택이 중요!** 인삼 해가림 시설의 적정 차광재 선택 당부, 폭염 피해 예방 및 고품질 생산	풍기인삼 연구소	사진별첨
★ **사진설명** - 이철우 도지사, '제14회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 출발행사' 참석	대 변 인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영천시 현장방문	대 변 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3. 10(일)】	담당부서	투자유치실		
		작성자	실 장	황 중 하	
			팀 장	장상열	주무관 윤중모
		연락처	054-880-4623		

경북도, 기업이 고용한 만큼 인센티브 지급한다!

- 고용인원과 투자금액 지원기준으로 투자인센티브 이원화 개편 -
- 신규고용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마련... 고용창출 극대화 -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자리가 넘치는 경북 만드는 데 앞장 -

경상북도는 기업유치 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제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기준 변경은 올 1월 미국 앨라배마에서 '경북 미주 진출 기업체 간담회'를 주관한 이철우 도지사가 미국이 세계를 이끈 것은 기업지원 위주의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경북도에서도 기업 유치 방향을 고용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는 고용 위주의 보조금 지원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입지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의 도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 기준에 따라 투자금액의 2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산정·지급해 왔으나, 투자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신규 고용인원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고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 규모가 커지는 구조로 조정했다.

현재 인센티브 지원은 투자금액 기준으로만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개정된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투자금액 기준에 신규 고용인원 기준을 추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개정 전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0명의 인원을 고용해야 하며, 고용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내 조례를 개정해 최고 100억원의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금의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보조금 산정 지원기준 개정과 특별지원금 한도 폐지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상공회의소 등 업계와의 간담회, 지역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의, 투자유치협의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선7기 최대 과제인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개 시군과 적극 소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군↔기업이 함께 만드는 투자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6천억불 달성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전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구미, 포항 등 지역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면서

“투자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고용 위주로 개편하여 정부의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3. 10(일)】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성자	과 장	임 현 성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최조임
		연 락 처	054-880-3316		

아직도 도시로 출근하니? 이제, 농촌으로 출근하자!

- 청년 영농정착 고민 끝, 창업 준비에서 정착~성장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

-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시행.. 농업법인, 청년 채용 시 인건비(월 200만원의 90%) 지원 -

경상북도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 농촌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지난 해 청년농부 2천명 육성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경북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들의 창업 준비와 정착,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청년농부 육성정책에 있어 '창농과 취농'의 투 트랙으로 추진하기 위해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 농촌 청년들의 9 to 6 시스템의 월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초보 청년농부들을 위해 농산업 창업 지원센터 운영, 2030리더 교육, 농과계 특성화 교육 등 청년 창농 특별 교육과 시설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설치 등을 통해 농촌 연착륙을 유도하고 영농 초기 창업자금* 및 선도농가 멘토링도 지원한다.

* 농고 졸업생 창업비용(5백만원/년, 3년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80 ~ 100만원/월, 5년간)

또한, 청년농업인의 사업 영역확대와 역할 증대를 위하여 청년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7개소)과 창농기반 구축(5개소)을 지원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6차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융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업분야 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바일 페이지(www.청년농부.com)를 개설하여 창농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 청년들이 농촌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농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산업분야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이다.

* 귀농 애로사항(농경연, 복수응답) : 여유자금(51%), 농지(42%), 주거(26%), 영농기술(21%)

지원대상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도내 농업법인*으로 월 200만원 기준 90%에 대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하면 된다.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참여 법인의 수요를 파악한 후 3월 중 별도 모집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향후 30년 이내 소멸 가능성이 높은 기초 지자체 상위 11곳 중 우리 도가 7곳을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경북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농부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이주·정착하면서 겪었던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농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청년창농 단계별 지원체계

진입

농 고 생	대 학 생	청년(예비)농
▸ 농고 창농특별반(3개교) ▸ 농고 특성화교육(5개교) ▸ 선도농가 멘토링(5개교) ▸ 농고 교사·학생 역량강화 – 선진 농업교육기관 연수	▸ 창농동아리 운영 지원(8개대) ▸ 농산업 창업지원센터(4개소) ▸ 후계농업 대학생 해외 선진기술 연수(3개대)	▸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 경영실습 임대농장(2개소) ▸ 소백귀농드림타운 운영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정착[창농]

청년농부 창농특별반, 청년리더 영농창업, 6차산업창업농 (농민사관학교)

2030 리더과정 교육 (道 농기원)

▸ 농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 5백만원/연, 3년간

▸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50~100만원/월)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80~100만원/월, 3년간)
▸ 청년농부 육성지원 (10백만원/연, 3년간)
▸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200만원/월, 2년간)

학사과정 특별전형
경북대 농산업학과
대구대 6차산업학과
도립대 축산학과
(대학별 20~30명정도)

품목별 교육 및 CEO과정 (농민사관학교)

성장

▸ 단계별 창업·보육지원 시스템을 통한 우수 경영체로의 도약, 전문화 유도
–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7개소)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5개소)
–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20명)
–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24개소)
–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6개소)

'22년까지 미래 경북농업의 혁신성장 주역이 될 청년농부 2천명 육성

참고 2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Ⅰ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 청년인구 지속유출로 농촌 지역 활력 감소

* 고령화율 46.4%(전국 3위), 도내 40세 미만 농가인구 14.6% 차지

○ **농업에 대한 실전 경험 및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기에는 **역부족**

* 귀농 애로요인(KREI) : 여유자금 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Ⅱ '19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3 ~ 12월

○ **사 업 량 : 16명**

○ **사 업 비 : 365백만원**(국비 180, 도비 60, 시군비 93, 기타 32)

○ 지원대상 : **도내 농업법인,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농업법인 : 1차 생산중심의 법인으로 2·3차 융복합 사업 영위 법인**

※ 운영실적 1년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법인

☞ 농업6차인증 경영체, 청년 대표 법인 우선 선발

- **청 년 : 지역 실거주 만18세~만39세 이하 농산업 취업 희망 미취업자**

○ **지원내용 : 농업법인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및 컨설팅 지원**

- **(농업법인)** 청년 1인당 월2백만원 기준 90% 인건비 지원
- **(청 년)** 안정적인 채용 위한 복리후생(건강검진비용) 지원
-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선도 법인에서의 2년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창농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2+1 지원시스템(2년 취농 후 1년 추가 지원)』 구축**

Ⅲ 추진일정

청년고용 희망 농업법인 신청·접수 ('19. 3월초)	⇨	농업법인 취업희망 청년 신청·접수 ('19. 3월중)	⇨	농업법인-청년 간 매칭 심사·선정 ('19. 4월초)	⇨	청년고용 사업시행 ('19. 4월부터)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3. 10(일)】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		
		작성자	과 장	김 석 환	
			팀 장	손성봉	주무관 김성숙
		연 락 처	054-880-3442		

콜록콜록... 미세먼지, 황사 우리도 싫어요~

- 가축 호흡기 질병 증가할 수 있어... 축사소독으로 위생적 환경유지 -

경상북도는 봄철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비, 황사 발생시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가축질병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가축도 황사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특히, 폐렴 등 호흡기 질병이나 결막염 같은 안구 질환에 걸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비한 축산농가 가축관리요령으로는 먼저 기상예보를 확인해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축을 축사 안으로 들여보내고,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는 한편, 야외 보관중인 건초나 볏짚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 주는 등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가 끝난 즉시 축사 주변, 내·외부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씻고 소독을 실시하며 방목장의 사료통, 물통 등 가축이 접촉하는 기구류도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을 이용해 소독해준다.

김석환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환기와 습도 등 축사 내부 관리와 함께 가축의 건강 상태를 관찰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사가 끝난 후 2주 정도는 가축질병 발생 유무를 면밀히 관찰하고 전염병 발생시 즉시 신고(1588-4060)해 가축질병 확산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3. 10(일)】	담당부서	경북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작 성 자	소 장	류 정 기	
			담 당	김승한	담당자 최양애
		연 락 처	054-632-1250		

고품질 인삼 생산... 해가림 시설 차광재 선택이 중요!

- 인삼 해가림 시설의 적정 차광재 선택 당부, 폭염 피해 예방 및 고품질 생산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1, 2년생(저년근) 인삼 재배를 위한 해가림시설 설치 시 폭염 빈발 지역에서는 청색지 사용을 자제해 고온기 폭염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삼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로 해가림을 해 그늘 아래서 재배하는데 지난해처럼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고온에 의해 잎과 줄기가 말라죽어 큰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 해 폭염으로 인해 인삼농가에 많은 피해가 나타났는데 특히 경북 지역 인삼 재배면적 1,396ha 중 20%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2년생(묘삼 이식)은 20~5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돼 평균 16.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풍기인삼연구소는 폭염기(‘18.7.27)에 차광재 종류에 따라 잎과 줄기(지상부)가 살아있는 비율(생존율)과 폭염기 이후(‘18.9.28)에 뿌리 무게(근중)를 조사했다.

그 결과, 1년생(종자직파)의 지상부 생존율은 재래종과 연풍품종 모두 은박지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흑청4중직, 청색지로 청색지에서 폭염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기 이후 근중은 재래종의 경우에 흑청4중직과 은박지에서 비슷하게 높았고 청색지에서 가장 낮아 청색지에서 피해가 가장 컸다.

연풍품종의 경우는 근중이 은박지, 흑청4중, 청색지 순으로 크며 청색지에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풍기인삼연구소는 특히 폭염 빈발지역에서 청색지와 연풍품종의 동시 선택은 더욱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기 풍기인삼연구소장은 “인삼은 건조하기 쉬운 표토층에 뿌리가 분포하고 있어 발육이 미약한 저년근 인삼일수록 고온 또는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며 “폭염 빈발 지역에서는 인삼 생산량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정 차광재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폭염 발생시 인삼 해가림 시설에 따른 차광재 영향 시험결과

1. 피해조사일 (2018년 7월 27일)에 해가림 시설별 인삼생육 전경



2. 폭염 발생 시 해가림 차광재 및 품종에 따른 지상부 생존율 및 근중

구 분			흑청4중직	청색지	은박지
1년근 (종자직파)	재래종	지상부 생존율 †(%)	35±5	5±1	72±13
		근중 (g/주)	0.3±0.1	0.2±0.1	0.3±0.1
	연풍	지상부 생존율	37±1	9±1	74±11
		근중	0.2±0.1	0.1±0.1	0.3±0.1
2년근 (묘삼이식)	재래종	지상부 생존율	60±10	13±11	82±8
		근중	2.5±0.9	1.9±0.5	3.0±1.0
	연풍	지상부 생존율	81±7	12±10	78±6
		근중	2.3±1.0	0.8±0.2	2.3±0.8

†: 지상부 생존율 = (지상부 생존 주수/출아 주수)×100 (7월 27일 조사), 근중은 9월 27일 수확하여 조사하였음.

사진설명

□ 이철우 도지사, ‘제14회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 출발행사’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 10일(일) 성주군 성주별고을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영천시 현장방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 11일(월) 오후2시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영천시를 현장 방문한다.